



농어촌공사 강진지사, 중대재해 예방 건설현장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지사장 이철욱)는 본격적인 우기철을 대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비상연락망 구축,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시

설 관리실태 점검과 함께, 호우·침수 대비 배수시설 정비 및 태풍·강풍 대비 시설물 무너짐·매몰 사고 예방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이철욱 강진지사장은 “우기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없는 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